



너도나도 감동 사연

#야 너도? #야 나도! #오늘의감동사연 #내가만난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들은 청취자의 사연을 나누는 시간, “야 너도? 야 나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 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 다양한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송명희 시인

오늘 만나볼 분은 시인 송명희 씨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지어 유명해진 분이지요. 시의 일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송명희 시인은 왜 자신에게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다고 했을까요? 그분의 사연을 들어봅시다.

태어나고 며칠 뒤, 심장이 하루 동안 멈췄었다. 다시 심장이 뛰었을 때, 나는 온몸이 마비되고 뒤를 린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 있었다.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줄 겨를이 없었다. 포레 애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열일곱 살에 참석한 어느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 주셨다.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오직 나에게만 선물하신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당신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사용하신다.



사연을 보내요.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의 사연

당신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간단한 그림과 글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